



Deloitte Newsletter

딜로이트 글로벌 리포트

O&G 부문이 직면한 핵심 이슈 살펴보기

- Oil & Gas Reality Check 2015

산업의 핵심사항에 대한 의문 제기

작년 보고서에서 다뤘던 글로벌 에너지 믹스, 국가간의 상호의존성 증가 등과 같은 산업의 핵심사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급락하는 유가가 글로벌 O&G 산업에 큰 타격을 준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15 년에도 유가 하락은 지속되어 배럴당 45 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의 에너지 독립 움직임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에너지 자급을 위한 경제 블록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러시아는 서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인도, 중국에서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학적 요인이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 관계와 거래 유형을 형성하는 핵심 동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 노력하는 OPEC 의 활동 또한 지정학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거래에 대한 예측 또한 크게 빗나가고 있다. 천연가스와 LNG 공급의 급격한 글로벌화가 예측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산지에 근접한 지역에서 주로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구매자들이 시장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어, 장기계약 협상과 신규 LNG 터미널 건설 진행이 느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O&G 산업(특히 상류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6 가지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수요공급 근본의 변화, 새로운 거래 유형의 부상, 시장에서의 OPEC 의 역할, LNG 가격의 하락, 대형복합 프로젝트의 장기 비용, 그리고 통합 석유회사(IOCs, Integrated Oil Companies)와 국영석유회사(NOCs, National Oil Companies)간의 변화하는 역학관계가 그것이다.

수요공급 근본의 변화

원유 공급부문의 상황

미국이란 주력 시장을 상실한 세계 메이저 원유 공급사들은 새로운 구매자들을 찾고 있다. 셰일가스/오일 개발 확대로 인해 미국의 석유생산량은 거의 하루 9 백만 배럴(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면 12.5MMbbl/d*)로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셰일 유정이 상당한 수익성을 확보할 만큼의 비용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라크, 이란(핵협상 타결 시), 브라질의 원유 공급 증가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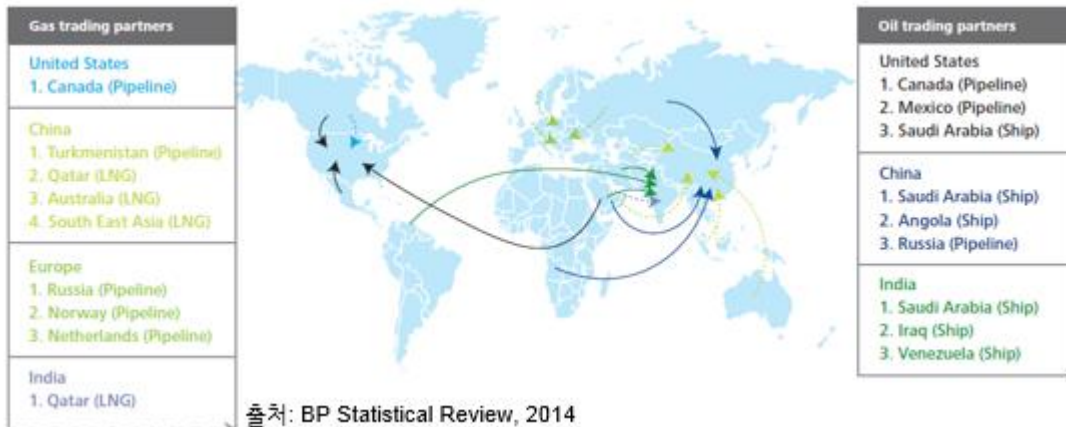
이러한 시장 역학관계의 변동은 기존 그리고 신규 원유공급자간의 힘겨루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중동의 공급자들은 아시아, 유럽으로 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고, 러시아는 시장 다변화를 꾀해 아시아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원유 수출금지 규제를 해제하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 OPEC 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경쟁자들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가 2015 년 탐사 및 생산에 쓰는 비용의 14.9%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급자들이 시장을 잠식해 감에 따라 오늘날 지배적인 글로벌 오일 공급자들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 MMbbl/d: 1 일 1 백만 배럴)

그림 1. 거래 흐름 - 주요 움직임들



원유 수요부문의 상황

세계 최대의 원유 수요처도 변하고 있다. 중국이 장기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5 년 중국의 수요가 단지 0.9MMbbl/d 증가할 것이라고 수요 전망을 최근 수정하였다. 서유럽은 불황의 여파가 지속되어 원유 수요가 줄고 있다.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는 2040 년까지 유럽의 수요는 14MMbbl/d 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국이자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5 년 1 월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3%가 감소했다. 세계 3 위의 원유 소비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도 2000 년 이후 원유 수요가 22%가 감소하였다. 일본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원전가동 재개에 따라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이커 인스티튜트(Baker Institute)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10~2020 년 동안 전 세계 원유수요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 년까지 전망해보면, 북미와 서유럽의 수요는 더욱 감소하고 반면 아시아태평양과 중동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세계 원유공급과 수요 중심지간의 전통적인 역학관계를 바꾸고 있다.

결론

미국이 에너지 독립으로 나아감에 따라, 정치적인 연대 구축에 있어 보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우디와 다른 중동산유국들의 지지 없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이란과의 핵협상을 벌이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안보가 주는 혜택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국 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나라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부터 셰일가스 개발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보호된'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정부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내부 경쟁과 에너지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정책 개혁, 중국의 CNPC의 유전 지분 민간회사 판매가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가격에 민감한 원유 수입국들이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 글로벌 지정학과 국제거래 패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거래 패턴의 부상

미국-캐나다-멕시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지역 에너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 개발 증가, 멕시코의 규제완화, 캐나다 오일샌드의 북미 지역 밖으로 수출 시 높은 비용이 주요 원인이다. 이들 국가의 문화적 유사성, 지정학적 이해관계 일치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러시아-캐나다-인도

러시아가 새로운 구매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고, 중국과 인도가 공급선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이들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CNPC는 2014년 5월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과 4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두 나라간의 관계 강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이후 두 국가는 잦은 정상회담, 군사교류 강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투표 공조 등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는 최근 인도와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4백억 달러 규모의 핵에너지, 5백억 달러의 원유 및 가스 공급 계약, 그리고 1백억 달러 규모의 방위, 농업, 항공분야 계약으로 구성되었다.

OPEC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지역간 무역 블록 강화에 대응해, OPEC은 서유럽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2013년 OPEC의 원유 수출의 60%가 아시아로 향했는데, 유럽의 수요는 이를 대체할 만큼 크지 않다.

하지만 서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고, 유럽 지역의 생산량이 2002년 이후 50%나 줄었기 때문에 OPEC의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 할 수 있다. 사우디는 유럽시장 지분 확대를 위해 2015년 2월 공급가를 배럴당 1.5달러 인하했다.

새로운 패턴이 확립된 것은 아직 아님

러시아의 블록 형성 노력은 중국이나 인도가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에 있어 공급선 다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의 거래 패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의 18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해양 천연가스 매장량은 독일, 영국, 프랑스의 수요를 18년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인도와 중국은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이 광구의 지분을 각각 30%, 20% 취득하였다.

결론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무역 블록이 점점 더 강화되고 경쟁력을 갖추에 따라, 러시아는 더욱 중국과 인도에서 중요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정학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러시아-인도-차이나 블록의 잠재력이 100% 발휘되면 러시아의 가스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OPEC의 전통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의 공급량이 줄어도 OPEC의 생산량은 어딘가로 공급되어야 하고, 국제 시장에서 주요 OPEC 국가들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중요 공급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OPEC: under pressure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효과적인 카르텔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엄한 규율, 지배적인 시장 지위, 진입장벽. 현재 OPEC은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문제에 처해 있다.

OPEC 회원국들은 설정한 생산 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규율 문제를 보여주는 징조일 수 있다. 2012년 이래 총생산 한도는 하루 3,000만 배럴로 설정되어왔지만, 2013년 평균 일일 생산량은 3,160만 배럴로 이를 초과하였다.

시장 지배 측면에서 보면, 현재 OPEC은 전세계 원유 생산의 약 32%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OPEC은 2018년까지 시장점유율 5% 추가 하락을 자체 전망하고 있다.

전통적인 탐사 및 생산 방식의 복잡성 때문에 유지되었던 진입장벽은 미국 셰일가스 혁명에 의해 촉진된 신기술과 혁신으로 붕괴되었다. 또한 OPEC 영향권 밖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산유국들이 있다. 2014년 비 OPEC 국가들의 공급량은 56.23 MMbbl/d에 달했다. 2015년 비 OPEC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 둔화가 예상되지만,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른 비 OPEC 국가들의 생산 규모로 인해 OPEC은 과거 수준의 세계시장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동등하지 않은 OPEC 회원국

하지만 이것이 모든 OPEC 회원국의 영향력 상실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안정적인 회원국들은 필요에 맞게 생산력을 늘리거나 유지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UAE가 그러한 국가이다.

그러나 나머지 OPEC 회원국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는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유가가 필요한 회원국들과 그렇지 않은 자원이 풍부한 회원국들간의 차이가 OPEC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OPEC 국가는 자국 예산을 맞추기 위해 약 배럴당 100달러의 유가를 필요로 한다. 저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일부 국가들은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년 손익분기점 유가



출처: Wall Street Journal, 2014

결론

OPEC의 생산량 유지 결정이 많은 산유국에 난관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러한 난관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캐나다-멕시코 경제 블록은 이에 잘 대비가 되어있다.

이러한 경향은 OPEC의 지배력이 장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 시대의 종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곤 한다. 분명히 GCC 국가들이 앞으로 OPEC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여분의 생산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유가 변화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주요 산유국들과 과거보다 그러한 영향력을 더 나눠가져야 할 것이다.

LNG 가격: 구매자가 주도하는 시장

2014년 초 LNG 시장에 대한 전망은 장밋빛이었다.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스가격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아시아 지역으로의 LNG 인도가격은 연초 대비 29.4% 하락하였고 2015년 2월에는 \$10.70/MMBtu 까지 떨어졌다.

가격 하락 원인 분석

이런 가격 하락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 유럽의 불황 여파와 신재생에너지 의존도 증가. 북아시아 지역의 따뜻한 겨울 날씨 전망, 일본의 원자력 발전 재개와 석탄 사용 증가. 중국의 공급처 다변화 등이 그러한 요인들이다. 전세계적인 과잉공급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 10년간 LNG 생산량은 매년 평균 6.5%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곧 생산에 들어갈 프로젝트들이 물량을 더 추가하게 될 것이다. 파푸아 뉴기니는 2014년 처음으로 시장에 LNG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호주의 7개 LNG 터미널이 계획대로 2018년 완공된다면 62MTPA*가 시장에 추가 공급될 것이다.

(* MTPA: Million Tonne Per Annum)

구매자들의 통제력 확보

LNG 가격 하락 결과, LNG 산업의 관행이었던 장기계약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구매자들은 유연한 배송지 설정부터 가격 재조정 권한 부여까지 보다 유연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가격 모델은 이미 구매자들에게 헨리허브가격(Henry Hub Price)에 기준한 천연가스 구매를 허용하였고, 가스 액화 및 선적 비용의 최대 한도를 설정해 가격 변동성을 줄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LNG 시장 경제학을 궁극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장기계약 회피와 추가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현물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일본의 추부 전력은 프랑스의 GDF로부터 아시아 현물시장 가격에 일부 연동된 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LNG 파생상품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LNG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세브론은 캐나다 키티맷 프로젝트 투자를 크게 줄였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는 캐나다 태평양 연안의 LNG 공장 프로젝트를 무기 연기했다.

결론

LNG 가격은 한때 안정성의 표준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때 까지 보다 인접한 지역간 거래가 증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호주의 LNG가 지역적 우위를 가지게 되어 싱가포르, 대만, 일본, 대한민국에 공급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북미 생산자들은 유럽과의 거래에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자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에 따라 LNG 프로젝트의 손익분기점이 낮은 미국(아마 캐나다도)이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 체계가 보다 널리 퍼져, 잠재적으로 글로벌 LNG 산업의 장기 가격 역학관계를 바꾸게 될 것이다. 허브에 연동된 가격 설정, 배송지 변경 유연성 및 새로운 비용 모델이 시장의 권력을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런 경향은 현물가격 연동계약이 보다 확대된다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혁신에의 투자: 복잡성의 비용

E&P 투자가 유가 변동성 지속에 줄고 있지만, 세계 4대 슈퍼 메이저 O&G 기업은 자본 예산의 약 40%를 메가프로젝트(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 40%의 투자 중 50%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과 혁신에 대한 대규모 투자 덕에 과거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매장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심해 탐사, 부유 LNG 저장설비, 북극 지방 탐사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혁신 사례에는 오지 및 심해 작업의 자동화, 고압/고온 드릴링, 다단계 프랙킹(fracking), 심해 로봇 등이 포함된다.

E&P 기업의 혁신, 글로벌 탐사 및 생산 비용은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7,233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엔 전반적 비용 감소가 예상되지만, 투자결정단계를 지난 프로젝트들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글러스-웨스트우드(Douglas-Westwood)는 2018년까지 1.4조 달러가 해양 개발에 투자되어 그 중 39%는 현장 서비스, 31%는 드릴링,

15%는 EPC와 심해 개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상 생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여 2020년까지 1,640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 810억 달러가 FLNG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정 및 예산 초과

하지만 문제는 많은 복잡한 프로젝트와 연계된 심각하게 높은 비용이다. 전 세계 프로젝트의 65%가 최소한 예산의 25%를 초과하고 있고/또는 최대 50%까지의 일정 지연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플루토 LNG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14개월 후에야 생산을 시작했고, 처음 예산보다 33%가 초과된 149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러한 예산/일정 초과와 원인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규제, 인건비/재료비 상승, 증가하는 기술적/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하다. 첨단기술에 대한 과도한 투자,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고집도 주요한 원인이다.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 사례

유가 하락으로 인해 비용 초과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을 기업들이 상실하고 있어, 비용 통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고비용 프로젝트가 수익성을 가지려면 최대 30%까지 비용절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합 프로젝트 인도, 첨단 애널리틱스, 린(Lean) 프로젝트 관리, 인력 관리, 디지털 유전개발, 모듈식 접근법 등이 포함된다.

결론

가까운 장래에 자본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 글로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들 프로젝트를 특징짓는 비용 및 일정 예산 초과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통합 프로젝트 인도, 린 프로젝트 관리 등의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보길 원할 수 있다. 또한 민활한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첨단 애널리틱스에 대해 투자할 수도 있다. 동시에, 시장가격 약세가 혁신을 촉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지부진한 유가 회복이 보다 큰 혁신을 촉진할 것이란 예상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국영 및 통합 석유회사들: 변화하는 역학관계

수십 년 동안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통합석유회사(IOC)들은 산업 지식, R&D 역량, 운영 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 기업들로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그들의 강점이 약화되고 있다. 원인 중 하나는 기존 유정의 고갈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IOC들은 비전통적 유정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IEA는 이들이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연간 6,800억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하지만 IOC들은 비용통제를 위해 자본지출을 삭감하고 프로젝트를 중지하고 있다.

반면 자금이 풍부한 국영석유회사(NOC)은 정반대의 행로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NOC들은 전세계의 알려진 원유 매장지의 약 90%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CNPC, CNOOC, 러시아의 가스프롬,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등의 M&A 활동이 수년간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아시아의 NOC들은 지난 2년 동안 해외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4년 NOC들의 매수세가 주춤해 지긴 했지만, IOC들과 달리 투자금액을 크게 줄이고 있진 않다.

혁신측면에서도 일부 NOC들은 IOC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IOC는 2012~2014년 동안 이뤄진 업계 기술혁신의 약 46%를 담당했지만, 그 비율은 2016년에는 3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NOC들의 혁신 비중은 2012년 24%에서 2014년 28%로 증가하였다.

결론

IOC들이 O&G 탐사와 생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래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IOC의 전통적 역량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 특히 비기술적 프로젝트에서는 NOC들이 시장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IOC들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위기를 대량 해고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돌파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유가 회복 시 생산 회복에 필요한 인재와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NOC가 IOC의 역할을 대체해 감에 따라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혁신 문화, 조직 효율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업계 내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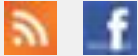
결론 - 민첩하게 대응하라

저유가가 O&G 상류부문에 큰 타격을 입혔고 E&P 예산의 절감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O&G 산업의 경기순환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 변동이 산업의 진행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자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국가들은 이를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다.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지속되는 노력은 글로벌 거래 패턴을 변화시키고 산유국들의 권력지형을 재형성할 것이다. 상품시장의 새로운 역학관계가 LNG 부문의 거래행태를 변화시키고 있고, 모든 지역,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비용 통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은 기민함을 유지해야만 한다. 본고가 다가오는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Deloitte Korea](#) | [RSS](#)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150-945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그 회사들의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입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각 회사의 법적인 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www.deloitte.com/kr/about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